

절망을 딛고 일어나는 우리 낙농인 됩시다!



김영선
경기 여주군 늘푸른목장

푸르고 푸르던 드넓은 들녘은 시나브로 황금색 풍요로움으로 출렁이고 덩달아 종종거리는 농부의 발걸음은 한해의 마무리를 재촉합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해는 우리 축산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악몽과 재앙으로 점철된, 잊을 수 없는 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세계 각국과 연이어 타결된 FTA로 우리의 낙농시장은 개방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선진낙농국들과의 치열한 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어 어려움이 한층 더 가중되었으며 또 우리 낙농가의 숙원이던 원유가 현실화를 위해 전국낙농인들이 협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피와 땀으로 생산한 원유를 폐기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은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한 원유가격에 대한 우리 낙농인들의 마지막 절규의 몸짓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구제역 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전국의 축산농가가 초토화되는 비극은 정말 잊지 못할 재앙이었습니다. 2010년 겨울부터 시작된 구제역은 초기 방역에 실패하면서 결국 전국으로 퍼져나가 340만여두의 가축이 매장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대재앙을 초래하였고 3조원에 육박하는 금전적 손실은 우리나라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식같은 가축들을 깊고 어두운 땅속에 매장시킨 우리 축산인들의 정신적 고통이 가장 큰 피해라고 하겠습니까.

저희 목장에서든 그 악마같았던 구제역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자식같은 젖소들을 지켜내지 못하고 115두 전두수를 땅속에 묻어야하는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처음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때만 해도 그저 '저러다 말겠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는데 매일같이 늘어가는 구제역 발생지역과 가축의 살

처분 매물 소식은 급기야 반경 20km까지 치고 들어왔고 일주일 간격으로 실시 하던 소독은 하루에 한번씩으로 바뀌었습니다. 혹한에 쫄쫄 얼어붙은 동력분무 기의 호스를 끓는 물에 녹여가며 방역에 매달렸고 집에 들어올 때 쯤이면 온몸 은 땀과 소독액으로 흠뻑젖어 버렸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설마 내 농장에까지...?' 라는 안일한 생각과 소독만 잘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버티며 목장 내 출입은 집유차 정도만 겨우 허락되었으며 사료차와 약품등은 외부에서 인수받아 차량의 목장진입을 차단하였습니다. 외지에서 학교에 다니던 자녀들은 전화상으로 안부만 전해들으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무서운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진행했지만 현실은 절망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최후의 수단으로 구제역백신 접종을 시작하였고 방역으로 만 일관하던 목장도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백신을 접종하였지만 그것도 잠시 뿐. 목장 700m 옆 양돈장에서 구제역발생과 전수 살처분이라는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들려왔고 하루 한번 하던 방역은 오전 오후 두 번으로 늘었으며 겉으로는 태연하게 방역에 전력을 다하였지만 속으로는 최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감지하였습니다. 결국 백신접종 후 일주일 만에 구제역 의심증상의 젖소가 발견되었고 115두 모두가 깊고 어두운 땅속에 매장되는 참담한 현실에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다는 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지인들의 도움으로 다시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고 지금은 어둡고 깊은 땅 속에서 가느다란 몇 개의 배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는 불쌍한 녀석들과 새로 입식된 60여두의 젖소들이 오순도순 희망을 이야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초기방역에 실패한 안일한 축산정책과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가축일지라도 예방목적으로 살처분해야하는 현재의 구제역 대응책을 다시 한번 재고해봐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농장의 자체 방역과 외부인 차단만으로는 진압이 불가능했다는 축산인들의 의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 축산인들의 방역의식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정립 되어야 하겠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방역이
결국은 내 농장을
지키는 가장 기본
적인 수단...”

구제역 뿐만이 아니라 브루셀라, 우결핵 등 모든 질병으로부터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확고한 사고와 그에 따른 철저한 방역, 그리고 기본적으로 축산인들의 해외 출입국시 검역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며 매주 수요일은 전국 축산인들이 일제방역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또 농장방문객의 차량소독, 방역일지 기록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과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축산업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좁은 축사에 다두사육으로 인해 질병에 대한 면역력의 저하로 각종 질병에 쉽게 노출되어 피해가 더 커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적당한 면적에 쾌적한 사육환경은 질병예방을 위해서는 필수조건이며, 이에 따른 정부의 지원정책 또한 규제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방역이 결국은 내 농장을 지켜내고 자식같은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내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향후 다시는 이러한 재앙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구제역 사태를 계기로 전 낙농인들이 심기일전 해야 할 것입니다. ☺

